

여러분을 아끼고, 여러분 가운데서 사역자로서 성실히
섬기는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꼭 표현하세요.

데살로니가전서 5:12 TPT

신실하게 기도하기

목회자와 교회 스태프를 돕는 가장 좋은
방법은 다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:

- 하나님과의 친밀함
- 부부 사랑과 연합
- 영적 보호
- 하나님의 인도하심
- 정서적·신체적 건강
- 양육의 지혜
- 진실한 우정
- 재정적 공급
- 매일의 지혜
- 개인적인 격려
- 힘이 되는 멘토
- 열매 맺는 사역
- 시간 관리
- 충실한 말씀 공부와 기도 시간
- 유익한 훈련과 도서
- 리더십 역량

- 텃밭이나 과수원에서 난 먹거리, 사냥이나 낚시에서 얻은 식재료를 나눠 주세요.
- 목사님과 가족을 집이나 식당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세요.
- 목사님과 가족이 낚시, 요트/보트 타기, 캠핑, 사냥, 헬스장, 콘서트, 연극, 스포츠 경기 등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초대해 보세요.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해도 좋습니다.
- 목사님과 교회 스태프에게 스포츠 경기, 콘서트, 각종 행사 티켓을 선물하세요.
- 별장, 타임셰어, 레저용 차량(RV)이나 캠핑 장비가 있다면 사용하도록 빌려 주세요.
- 컨퍼런스, 휴가, 선교 여행, 명절 이동 등에 쓸 수 있도록 마일리지(항공 적립 포인트)를 나눠 주세요.
- 명절 가족 여행이나 휴가 때 믿고 탈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세요.

재정

교회에 성실히 헌금하여 목사님과 교회 스태프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. 교회 급여 외에도, 주님께서 어떤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래와 같은 필요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:

- 목사님 & 스태프 축복 헌금
- 부부 수련회 비용
- 기독교 캠프 참가비
- 개학 준비비(학비, 의류, 학용품 등)
- 자녀 대학 등록금
- 선교 여행
- 레슨 또는 과외
- 가족 또는 부부의 여행/휴식
- 목회자 컨퍼런스, 세미나 또는 훈련
- 신학교 과정 또는 안식년
- 학자금 대출 상환
- 은퇴 준비 저축
- 의료비

따뜻한 마음

-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을 복 주시고 돕고, 하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시는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세요.
- 카드, 선물, 또는 SNS 게시물로 생일과 기념일을 기억해 주세요.
- 강점은 기쁘게 칭찬하고, 약점에는 너그러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.

기꺼이 나누세요

아래와 같은 일들에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을 나눠 도와주세요:

- 아이 돌봄(베이비시팅)
- 자동차 정비 및 수리
- 집 수리, 유지보수 및 각종 집안 프로젝트
- 인테리어, 페인트칠 및 벽지 시공
- 헤어컷 및 미용 관리
- 의료, 치과 및 카이로프랙틱 진료
- 잔디·정원 관리
- 법률, 상속 및 재무 서비스
- 자녀 과외 또는 레슨

선한 나눔을 이어가요

‘선한 나눔을 이어가기(페이 잇 포워드)’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. 더 이상 쓰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이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나눔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예를 들면 가전제품, 가구, 악기, 의류, 스포츠 용품, 전자기기 등이 있을 수 있어요. 다만 목회자나 교회 스태프에게 실제로 필요한지, 정말 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세요. 그리고 상태가 좋아서 큰 수리비가 들지 않는 물건인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.

자유

- 사모(배우자)가 있는 그대로 지내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.
- 자녀들이 “아이답게” 자라도록 응원하고, 관심을 갖고, 함께 기도해 주세요.

음식, 교제 & 즐거움

-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드리세요(좋아하는 메뉴나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면 좋아요).
- 식당, 패스트푸드점, 또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선물해 주세요.

필요하다면, 목사님이나 교회 스태프가 부담해야 할 실비가 있는지(예: 자동차 수리 부품비, 집수리 자재비) 미리 알려 주세요.

참고: 제안하신 것을 목회자나 교회 스태프가 정중히 사양하실 수도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 주세요. 또한 여기 언급된 물품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나눔임을 기억해 주세요.